

# 국내 최대 방산수출 창구 'DX KOREA' 2020년 9월 개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DX KOREA 2020'(Defense Expo Korea 2020)이 2020년 9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는 전시회에서 기동, 화력, 방호, 통신, 지휘장비 등 무기체계와 피복, 장구류 등 전력지원체계, 대테러와 보안 장비 등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 물자와 이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야외 시범장에서는 장비 성능 시범과 탑승 체험이 가능하다.

이 전시회는 국산 제품의 우수성과 지상 장비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로,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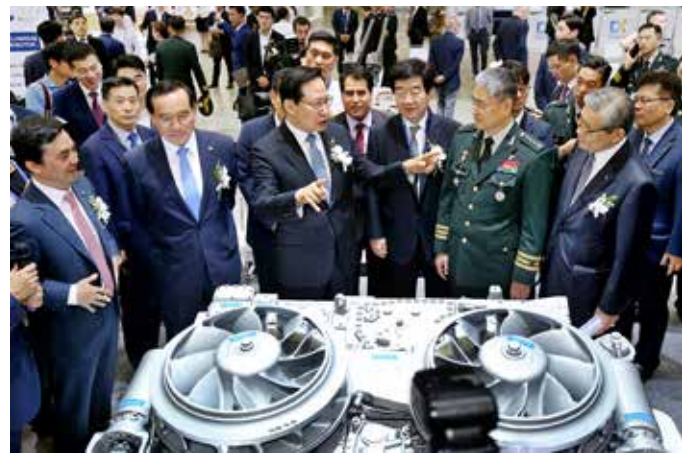
정부 주요 기관도 전시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해외 국방 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하고 방위사업청은 참가업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성과 확대에 도움을 준다.

DX KOREA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를 물론 해외 유명 방산기업들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2014년 첫 전시회는 100여 개사가 400여 부스 규모로 참여했지만, 2016년에는 190여 개사, 1천 부스로 커졌고, 2018년은 30개



국 200여 개사에 1천200여 부스로 대폭 늘었다.

DX KOREA 조직위원회 박춘중 운영본부장은 "방산전시회를 통해 국내 참가업체에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구매자인 해외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❶

